

시론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패키징' 공장, 기대된다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前 대한지리학회장

지난 4월22일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에 자리잡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단 부지에서 SK하이닉스 'P&T' 착공식이 열렸다. 'P&T'는 P(Packaging)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공정)와 T(Test: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공정)의 약자로, 반도체 제조의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Packaging & Test)'를 전담한다. '7'은 청주 캠퍼스의 7번 구역에 들어서는 시설을 지칭한다.

P&T는 HBM(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용량을 높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시킨 고부가치 고성능 제품)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전용 팹(FAB)이다. 부지면적은 약 2만㎡(7만평)이고, 약 19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P&T는 두 개 라인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WLP(Wafer Level Packaging) 웨이퍼를 칩 단위로 잘라 칩을 패키징하는 기존의 전통 패키징(Conventional Package)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웨이퍼 상에서 패키징을 마무리해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 라인으로, 3

개 층 약 6만㎡(약 18만평) 규모다. 다른 하나는 WT(Wafer Test) 라인으로, 7개 층 약 9만㎡(약 28만평) 크기다. WT 라인은 2027년 10월에, WLP 라인은 2028년 2월에 각각 완공된다. P&T에 근무할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는 이전에 이어 SK하이닉스의 두 번째 거점이다. 청주에는 이번 착공한 P&T를 포함해 5개 시설이 분포한다. 1캠퍼스의 M11(낸드플래시 공장, 2008년 준공), 2캠퍼스의 M12(M11 확장형 낸드플래시 공장, 2012년 준공), 4캠퍼스의 M15(3D 낸드 전용 대형 공장, 2018년 준공)와 M15X(메모리 전공정 팹, 현재 확장 중), P&T7(AI 메모리 후공정 전용 팹) 등이다.

1·2캠퍼스(향정동)는 서청주IC 인근 공단에 위치한다. 광주로 치면 하남공단 같은 곳이다. 4캠퍼스(외북동)는 신규 산단에 자리를 잡았다. 광주 첨단3지구와 유사하다. 5개 시설부지 면적은 축구장 크기 120개(약 25만평 내외)를 합쳐놓은 크기다. 현재 4개 시설 근무인력은 최소 7천500명에서 최대 9천500명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상주 인력(사내 협력사 포함)과 비슷하다.

필자는 청주에 갈 때마다 SK하이닉스의 웅장한 시설 규모가 부러웠다. 우리 지역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 첨단지구에도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엔코테크놀로지 광주공장이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와 비교 불가이니 그렇다.

4월 'P&T' 착공식 직전에도 청주를 갔다. 고속터미널에서 4캠퍼스를 지나가는 동안 택시기사는 곧 패키징 공장을 착공할 것이라는 뉴스를 전해줬고, SK하이닉스 덕분에 인구가 계속 늘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자랑을 끝도 없이 쏟아냈다.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있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SK하이닉스 효과는 고용통계로도 확인된다. 2025년 청주시 인구(15~64세) 고용률은 72.6%로 전년보다 2.1%p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은 47.2%에서 48.9%로 올랐다. 전국 인구 8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용률이 가장 높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효과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SK하이닉스 덕분에 청주가 '수출권'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패키징 공장이 첨단 3지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뉴스다. 7월1일 전남 광주통합시 출범 선물로 정부가 발표할 것이란 설이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삼성전자 단독이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엔코테크놀로지 4사 특수법인인 등 상관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대만 TSMC의 일본 내 제1·2공장은 큐슈 구마모토현 기쿠치군에 있다. 일본의 반도체 연합법인 라피더스(Rapidus)가 만든 파운드리 공장은 홋카이도에 있다. 때문에 광주 첨단지구라고 안될 리 없다. 첨단지구에 들어설 패키징 공장이 언출할 풍경이 기대된다.

社說

행정통합 따른 민원서비스 중단 불가피하다고 해도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부 민원서비스가 제한된다. 대규모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에 따라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편 최소화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도민들도 내용을 확인해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다. 평소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는 가급적 미리 받아야 한다.

필수적인 과정이다. 중요한 절차다. 전남과 광주 두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05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합치기 위해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용률이 낮은 요일과 시간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마지막 주말인 27·28일은 건축물대장 발급, 지방세 납부, 수도 요금 조회, 지방재정,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등이 함께 멈추며,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를 이용할 수 없다.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도 적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시 출범일 전후로 만일의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담반을 가동한다. 특별시 준비 종합 점검회의도 열어 주요 분야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민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정비, 민원행정 통합 접수 및 중단 안내, 운영체계 통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전남도·광주시는 공식 누리집, TV 자막방송,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전국 최초의 초광역 특별시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원활히 순항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 시가. 아무리 전례가 없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통합과 전환 작업이라고 해도 초기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긴다면 그 어떤 해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남은 기간에 이상 유무 등을 거듭 확인해야 한다. 행정체계의 연속성 차원에서 일부 민원서비스 제한이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값 오르고 소비 줄고, 가장 큰 5월 대목 잃은 꽃시장

고물가와 소비 위축 여파로 화훼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광주원에농협에 반입된 절화류 물량은 총 23만105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급량은 3.6% 늘었다. 하지만 꽃값이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되레 커졌다고 하소연이다. 실제로 카네이션(일반) 한 단경매 평균 가격은 7천216원에서 7천880원으로 9.2% 증가했다. 특히 장미는 가팔랐다. 스탠더드는 5천55원에서 7천905원으로 56.3%, 스프레이 품종은 5천371원에서 1만6천27원으로 188.4% 폭등했다. 업계는 원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상승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면서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 더해 가격은 뛰고 그만큼 사는 사람은 줄었다. 생화는 운도에 민감해 난방이 필수적이다. 1년 전보다 27%가량 치솟은 면세 등유값에 마음 졸이며 수확했는데, 일정 수익은 고사하고 결국 감당 못할 빚만 늘어났게 됐다. 리본과 포장지 같은 부자재까지 마치 날개를 달았다. 얼린 데 달았다. 농가들은 한숨부터 나온다.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가 쌓인다 보니 아예 다른 작물로 바뀌어야 할까 고민이 깊다.

가정의 달로 일컫는 5월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로즈데이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카네이션과 장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권에서 기대 만큼 팔리지 않았다. 모처럼의 특수가 사라져 꽃집 상인도, 꽃을 키우는 농민도 하나같이 울상이다. 중동 전쟁까지 더해 가격은 뛰고 그만큼 사는 사람은 줄었다. 생화는 운도에 민감해 난방이 필수적이다. 1년 전보다 27%가량 치솟은 면세 등유값에 마음 졸이며 수확했는데, 일정 수익은 고사하고 결국 감당 못할 빚만 늘어났게 됐다. 리본과 포장지 같은 부자재까지 마치 날개를 달았다. 얼린 데 달았다. 농가들은 한숨부터 나온다.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가 쌓인다 보니 아예 다른 작물로 바뀌어야 할까 고민이 깊다.

꽃은 비필수 소비재로 분류된다. 조금만 올라도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 케이크나 건강식품 등 대체품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동네 상가도 주문과 함께 방문 고객이 확연히 감소한 현실을 실감 체감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예전과 같은 금액으로 훨씬 작은 다발을 받아보게 돼 지갑을 여는 게 망설여진다. 설사 구입하더라도 몇 송이 소량이 대부분이다. 연중 가장 큰 대목도 이전 옛말이 됐다. 화훼업계는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기고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최적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과 에너지 혁신을 위해



박응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장)

국민주권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및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통합과 집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몇몇 기업 체제에 대해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의문'이라며 현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기능이 유사한 기업들을 합쳐 비효율을 줄이고 경영 성과를 높여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기관을 세우고 추가로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등 최적의 발전공기업 통합시나리오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나서고 있다.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분사가 위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시는 국내 유일의 전력 공급망을 보유한 혁신클러스터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발전공기업 통합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자 에너지 전환을 이룰 핵심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통합의 방법과 본사 입지는 행정적 편이나 지역적 안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로드맵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이미 한국전력공사(송·배전), 전력거래소(전력 거래 시장), 한전KDN(전력 IT), 한전KPS(발전설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연구개발)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다. 이곳에 통합 발전공기업과 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이 함께 위치한다면 발전-송전-배전-거래-기술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는 국가 에너지 전주기 통합 운영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거점이며 미래 에너지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전남·광주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과거 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전력시장 구조를 발전사 분리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흩어지게 했고 이에 따라 과도한 단가 위주 경쟁으로 인원 절감 압박으로 산재 위험이 가중되는 등 경쟁 효과보다는 중복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발전공기업 통합과 본사 입지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으로 한 해 지방세 수입도 120억원 이상 기대되는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남·광주로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이제 7월부터 통합시민으로 하나되는 320만 지역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자.

최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으로 전환되는 시만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게 대두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발전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더불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분야 기관을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재배치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점도 중요하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송전의 실시간 통합 운영이 필수라는 전망이 많다. 전력 생산과 전력 송배전 이 물리적으로 같은 도시에 위치할 경우, 에너지 산업 전체의 작동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국내 전력 송배전을 총괄하며 전력

이렇듯 공공기관 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발전공기업 5개 사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

독자투고

버려진 물건, 절도죄가 될 수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집 앞이나 농로 주변에 놓인 물건을 '밖에 나와 있으니 버린 물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이 반드시 집 안이나 창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 마당, 건물 앞, 농지 주변 등에 잠시 보관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두고 있는 물건 역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 아래 있는 재물로 인정된다.

이나 농기계 자체 등을 야외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합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확인하는 등 신중함이 필요하다.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작은 배려와 성숙한 준법의식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성립한다.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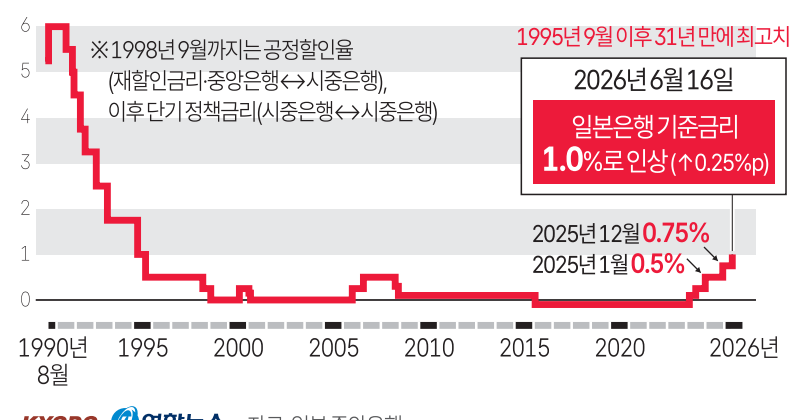
실제로 농기계 부품, 고철, 화분, 재활용품, 빈 병 등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수확물

(조은지·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일본 기준금리 추이



일본 중앙은행은 16일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 8명 중 7명이 0.75% 인상에 찬성했다. 나머지 1명은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8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1985년 사실상의 일본 기준금리는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됐고, 이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됐다. 이후 일본 기준금리는 0.5%를 넘는 적이 없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작년 1월에는 '0.5%' 정도, 같은 해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은행이 중동 경제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Address. Includes sections for 편집부 (Editorial), 정치부 (Politics), 경제부 (Economy), 사회부 (Society), and 광고문의 (Advertising).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